

## 유아 그림책 속의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전가일\*\*

### The Ontological Understandings of Young Children in the Picture Books for the Early Childhood

Jeon, Gail

이 연구는 좋은 유아 그림책 속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좋은 그림책의 선정 기준에 대해 그림책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총 3단계에 걸쳐 최종적으로 존 버닝햄의 <알도>, 데이비드 위즈너의 <시간상자>, 백희나의 <장수탕 선녀님>, 피터시스의 <마들렌카의 개> 4권의 그림책이 분석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분석을 위해 그림책 내용에 대한 극화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이 극화코딩 자료들을 존재론적 현상학의 이론들을 통해 주제화하였다. 연구결과 유아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성은 각각 '피투이며 동시에 기투하는 중층적 존재'(알도), '욕심을 버리고 관계의 얽힘에 책임지는 존재'(시간상자),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존재'(장수탕 선녀님), '성인의 교육적 반응을 촉구하는 존재'(마들렌카의 개)로 주제화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각 어린이 존재성이 성인의 존재 특성과 다르지 않음(존재의 중층적 성격), 성인의 존재 특성과 다른 독특함(교육적 반응의 촉구), 성인의 존재성을 초월함(타인에 대한 책임과 반응)의 특징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 연구는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발달적 존재로서의 의존성과 미숙함을 지닌 존재일 뿐 아니라 중층적 존재이며 반응을 요청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린이가 성인과 같은 존재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돕는다.

▶ 주제어 : 유아 그림책, 어린이 존재론, 존재론적 이해

\* 이 연구는 장안대학교 2014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 1저자(교신저자) :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E-mail : abigail153@hanmail.net)

## I. 서론

어떤 사물이나 존재가 그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답다’고 한다.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며 ‘아이답다’고 하거나 반대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는 ‘아이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끔씩은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다’는 감탄도 한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두고 아이답다고 하는 것일까? 과연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하는 것은 어린이의 어떠한 존재성 때문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의 존재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어린이를 이해하는 길이 된다.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의 존재성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담론과 인습적인 선 이해 등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용환, 2012). 우리는 흔히 아동기를 성인 모두가 한번쯤은 거쳐 온, 그러나 성인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인간 상태로 여긴다. 그러나 아동기가 인간의 독특하고 고유한 기간이라는 믿음은 근대에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근대적인 시선에서의 어린이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에 따라 대상화된 아동으로 객체화된 타자이고, 보편적인 아동(universal child)이다(유혜령, 2012; Cannella, 2002). 이렇게 대상화된 아동은 특정한 인간 발달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근대적 관점의 합리주의적 철학이 생각하는 “진보”, 즉 미리 결정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근대 과학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실증주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이진경, 2007; Lincoln & Guba, 1985).

Cannella(2002)는 19세기와 20세기의 실증주의적 가정이 아이들에 관한 담론을 지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담론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이란 인간의 한 시기를 특징짓는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특성들로 실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성인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은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개체이다. 셋째, 선 규정된 아동의 진리, 즉 아동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담론은 아동기가 성인과는 다른 실재하는 특징이 있는 특정 시기로, 어린이가 ‘순진무구’하고 무엇인가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정한다. Suransky(1992) 또한 아동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성된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아동기가 역사적으로, 여성해방론에서, 사회과학에서, 발달이론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아동기는 추종과 의존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왔으며, 급진적 여성해방론에서 아동은 출산·양육과 관련한 여성의 연속과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존재다. 또한 발달이론에서는 어린이가 인지적·도덕적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발달적 존재라고 가정하며 이러한 발달 단계의 가정을 아이들의 도덕교육에까지 적용시킨다(Suransky, 1992).

역사적인 아동의 이미지를 고찰하기 위해 Schorsch(1996)는 아이들이 등장하는 역사적 그림을 분석하였는데 그 연구에서 어린이는 성인의 기대에 순종하는 ‘착함’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 15세기에는 착하고 조숙한 이미지, 17세기에는 순정과 순진의 이미지, 19세기에는 미래의 사회적 위치를 준비하는 존재로 그려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인습적인 어린이의 이미지는 영화나 TV 등의 대중매체 분석을 통해 이뤄져 왔는데, TV 광고 속에 나타난 어린이는 ‘유능하고 똑똑한’, ‘순수한’, ‘소비적인’, ‘희망적이고 밝은’, ‘구속적인’, ‘의존적인’ 이미지로 그

려지고 있다(조문현, 박현주, 2005). 이와 같은 이미지는 어린이의 존재적 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습적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학문적·인습적 아동 담론 속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적 속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린이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발달의 과정 중에 있는 미숙한 존재이다. 이러한 발달적 미숙함으로 인해 어린이는 성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속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다. 둘째, 어린이의 존재적 속성은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특성의 실재로서 성인의 존재성과는 구분되는 다른 특성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어린이의 존재론에 대한 학문적 담론과 사회·인습적 이해가 어린이의 존재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혹 이러한 어린이의 존재성에 대한 전제들은 Smith(1983)의 지적처럼,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연스런 이해(natural understanding)” 이기보다 성인이 어린이는 어떠한 해야 한다고 선협적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유아교육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 어린이 존재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군의 학자들(유혜령, 1997, 2013; Cannella, 2002; Leavitt, 1997; Smith, 1983; Suransky, 1992) 역시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의 존재성 담론에 대해 비슷한 맥락의 지적을 했다. Cannella(2002)는 아동기라는 개념이 사회·문화적으로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지적했으며, Leavitt(1997)은 아이들이 영아기부터 성인들이 가정하는 어린이다움에 따라 사회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Suransky(1992)는 아동기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어 아동의 발달을 직선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인중심의 경직성을 지양하고 아동기를 미래에 대한 인류 의식 속에서 변화하는 역사적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어린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린이의 존재적 속성을 깨닫기는 더욱 어렵다(백승화, 강기수, 2012; Suransky, 1992).

Heidegger(1998)는 인간이 모든 존재자들 중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사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현존재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속성을 고찰하는 것은 결국 존재의 속성을 밝히는 존재론임을 역설하고 있다. 어린이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현존재 이므로 우리는 어린이의 존재적 특징에 대한 이해 즉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을 통해 어린이를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의 생활세계(life world)의 한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많은 질적연구들은 결국 어린이 존재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존재론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어린이의 존재적 속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료의 하나로 유아 그림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책으로, 그림책의 내용과 교육적 의미는 어린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백승화, 강기수, 2012). 또한 그림책에 나타난 어떤 이미지는 독자들이 해당하는 시대적 이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김현경, 현은자, 2006). 즉 그림책에는 그 시대의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이의 존재 특성뿐 아니라 작가들이 지향하는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도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유아 그림책은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자유변경<sup>1)</sup>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치 좋은 소설이

1) 자유변경(free variation)은 현상학에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그 대상의 구성요소를 가진 다양한 대상들 임의로 자유롭게 변경해 봄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과정이다(이남인, 2014). 예를 들어 이 연구의 초

비록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이를 통해 삶의 진실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듯이(조용환, 1999), 좋은 그림책이라면 어린이의 존재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이해에 다가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유아 그림책을 고찰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유아 그림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주제는 크게 ‘그림책을 통한 교수방법’, ‘그림책 텍스트 작품 분석’, ‘그림책과 관련한 유아 반응’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송미선, 서정숙, 2012). 이러한 흐름 중 그림책 속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성과 관련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림책의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둔 작품 분석 연구들(김영연, 최남정, 2009; 김영옥, 2012; 김정선, 2013; 김현경, 현은자, 2006; 이수경, 2013; 장성단, 이주리, 2013; 전나리, 2007; 최은규, 정대련, 2002)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품분석 연구들은 다시 문학적 요소 및 장치 분석 연구들(김영옥, 2012; 서정숙, 김정화, 유은석, 2009; 전나리, 2007), 텍스트의 주제 분석 연구들(김현경, 현은자, 2006; 정선혜, 2008), 특정 작가와 개별 작품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들(김영연, 최남정, 2009; 김정선, 2013; 나선희, 현은자, 2008; 이수경, 2013; 이연승, 2003; 신미숙, 2013; 장성단, 이주리, 2013; 최혜림, 2012)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이 중 극히 일부의 연구(백승화, 강기수, 2012; 정선혜, 2008)가 아동소설에 나타난 어린이상과 그림책의 교육인간학적 의의 등을 고찰함으로써 어린이의 존재론과 관련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혜(2008)는 ‘사실 동화’라고 불리는 아동소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어린이상을 ‘자기 구현적 상’, ‘현실 인식적 상’, ‘자기희생적 상’, ‘성장하는 상’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선혜(2008)의 연구는 어린이 문학학을 통해 한 시대와 문화에서 추구하는 어린이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가들이 어린이 문학 속에서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새로운 어린이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아동 문학학을 통해 어린이의 존재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선혜(2008)의 연구는 그림책이 아니라 연령이 높은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하는 근·현대 한국 아동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아 그림책은 아동소설과 달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문학텍스트이며(김현경, 현은자, 2006; 백승화, 강기수, 2012), 그림과 글이 상호텍스트성을 이룸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 내는 예술형식임을 고려할 때 유아 그림책을 아동소설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백승화와 강기수(2012)는 그림책에 초점을 두어 본 연구에 보다 직접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백승화와 강기수(2012)의 연구는 그림책이 가지는 교육인간학적 의의를 논의하면서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사고를 통해 어린이를 ‘물활론적 사고’, ‘환상적 사고’, ‘모험적 사고’를 하는 특징을 가진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는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성을 존재적 특징이 아니라 어린이의 인지 특징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으며 그림책의 구체적 실제 콘텐츠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린이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아 그림책의 실제 텍스트 속에 그려진 어린이의 존재적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좋은 유아 그림책에 묘사된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과연 유아 그림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

점인 어린이의 존재 속성이 찾고자 하는 본질이라면 어린이의 존재성은 생활사태, 그림, 책, TV광고 등의 다양한 사태와 상황 속에서 드러나므로 우리는 그 다양한 변이(variation)들을 파악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에 다가설 수 있다.

해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그림책 선정 과정

그림책 속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론적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연구목적과 관련한 것으로, 분석 대상 그림책은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와 장면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분석 대상 그림책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선정된 그림책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유아 그림책으로서의 교육적, 심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좋은 그림책이어야 한다. 셋째는 분석 대상 그림책의 대중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선정된 그림책은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있으며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림책이어야 한다. 그림책 속에 나타난 어린이다움을 탐구하려는 것은 결국 그림책 속에 그려진 어린이다움이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그림책의 선정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유아 그림책 출판업에 종사하는 편집 전문가 1인에게 좋은 그림책의 선정 준거를 제시할 만한 기관이나 시상단체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관으로서는 <어린이 도서연구회>와 <열린 어린이>를, 시상단체로는 세계 4대 아동문학상을 추천받았다. 세계 4대 문학상은 국제아동도서협의회가 주관하는 ‘안데르센 상(Christian Andersen Awards)’, 미국의 ‘칼데콧 상(The Caldecott Medal)’, 이탈리아의 ‘볼로냐 국제아동도서(Bologna Children’s Book Fair) 상’, 영국의 ‘케이트그린어웨이 상(The Kate Greenaway Medal)’을 말한다. 국내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과 세계 4대 아동문학상 수상 작가 목록을 참조로 하여 4대 문학상 수상 경험이 있는 작가들 6명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아이들의 관점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진 4명의 작가를 2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아이들의 관점을 잘 표현하는 작가야 말로 작품 속에서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잘 드러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 작가로는 존 버닝햄(John Burningham), 데이비드 위즈너(David Wiesner), 피터 시스(Peter Sis)를 선정하였으며 국내 작가로는 백희나 작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4인 작가들의 그림책들 중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존재 특징을 잘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림책을 한 작품 씩 골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그림책으로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의 <알도>, 데이비드 위즈너(David Wiesner)의 <시간상자>, 백희나의 <장수탕 선녀님>, 피터 시스(Peter Sis)의 <마들렌카의 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 대상 그림책

#### 1)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의 <알도>

영국의 3대 그림책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존 버닝햄은(John Burningham) 독특한 화법과 화풍, 아이들의 관점에서 본 현실 풍자로 유명하다. 그는 간결한 글과 자유로운 그림으로 심오한

주제를 표현하며(김영연, 최남정 2009), 그의 그림은 여백 있는 공간과 단순한 선, 수채화 같은 맑은 색채 등을 특징으로 한다(이수경, 2013). 1963년에 출판한 첫 번째 그림책인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로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았으며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로 같은 상을 다시 받았다. 존 버닝햄의 <알도>는 외로운 한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가장 친한 상상의 친구, <알도>에 관한 이야기다. 외롭고 친구들에게 괴롭힘도 당하는 한 여자아이가 삶의 아픈 순간을 자신만의 상상 친구 알도와 함께 겪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존 버닝햄은 <알도>에서 어린이가 자연스런 생활세계 속에서 겪는 삶의 외로움과 아픔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알도의 주인공 아이는 엄마와 내면적 교류가 없어 외롭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부모의 불화를 지켜보아야 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꾀다. 버닝햄은 어린이 삶의 행복하고 밝은 측면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에 관점에서 보는 어른을 묘사하면서 이를 통해 아이가 삶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의 관점을 탁월하게 드러낸다. 버닝햄은 <알도>를 통해 어린이가 늘 행복한 존재라는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2) 데이비드 위즈너(David Wiesner)의 <시간상자>

데이비드 위즈너는 미국 출신으로 사진 같은 사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유명하다. 그는 많지 않은 작품으로 세계 4대 아동문학상인 칼데콧 아너상과 칼데콧 상을 4번이나 수상했다. <시간상자>는 2007년 칼데콧 수상작으로 그의 다른 대다수의 그림책들이 그러하듯이 글이 없는 그림책이다. <시간상자>는 데이비드 위즈너 특유의 사진과 같은 프레임을 백분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이야기 속의 이야기’ 혹은 ‘장면 속의 장면’이라는 미장아빴(Mise-en-abyme)<sup>2)</sup>이 특징적이다. 바닷가에서 놀던 주인공 남자아이가 파도에 떠내려 온 수중카메라를 발견하는데 그 카메라의 사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온갖 바다의 비밀들이 담겨 있다. 이 바다의 비밀들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데이비드 위즈너는 특유의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와 화려한 색채로 바다 속의 판타지를 현실인 듯 느끼게 하며 독자의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단번에 무너뜨린다. 시간상자는 먼 화면에서 가까운 화면으로, 주인공의 눈에서 카메라의 눈으로, 그러다가 바다 속의 동물들의 눈으로 계속해서 시선을 옮기며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든다. 이러한 유연한 넘나들은 <시간상자>의 독특한 프레임 덕분에 가능하다(김정선, 2013). 그림책에서 프레임은 글 텍스트, 그림 텍스트처럼 잠재성이 뛰어난 그림책 언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위즈너는 프레임으로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데 매우 탁월하다. 이 독특한 프레임은 한 장면에서 장면 속에 또 다른 장면이,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또 다른 장면을 계속해서 배치해 나가는 미장아빴을 가능케 하고 있다. <시간상자>의 이야기 중심은 카메라를 발견한 아이들의 선택이다. 카메라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즈너가 그리는 어린이의 존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백희나의 <장수탕 선녀님>

한국의 그림책 작가인 백희나는 독특한 상상력과 입체 일러스트로 유명하다. 첫 번째 창작 그

2) 미장아빴(Mise-en-abyme)이란 “첫째 안에 두 번째 것이 심연이 되게 하는 문장 방식”으로 그림책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메타픽션 전략과 중첩된다(김영옥, 2012).

림책인 <구름빵>이 2005년 볼로냐 국제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에 올랐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장수탕 선녀님>은 53회 한국출판문화상, 제 3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한 그림책이다. <장수탕 선녀님>은 시대에 뒤 떨어진 오래된 목욕탕을 찾는 덕지와 그 목욕탕에 살고 있는 ‘선녀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놀이친구가 되어 펼치는 이야기다. 덕지가 사는 동네에는 아주아주 오래된 목욕탕인 ‘장수탕’이 있다. 주변에는 새로 생긴 좋은 목욕탕도 많지만 덕지의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수탕을 찾는다. 그 낡은 장수탕에도 덕지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사 주는 요구르트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냉탕이다. 덕지는 냉탕에서 선녀할머니를 만나 신나게 놀다가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열탕에서 때를 불려 엄마에게 때를 밀리고 엄마가 사준 요구르트를 선녀할머니에게 내민다. 그날 밤 덕지는 냉탕에서의 물놀이 때문에 감기에 걸려 밤새 앓다가 덕지를 찾아온 선녀할머니 덕분에 감기를 털고 일어선다. <장수탕 선녀님>은 목욕탕을 소재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아이와 어른 간의 따뜻한 우정을 통해 위로를 준다. <장수탕 선녀님>에서 선녀할머니를 대하는 덕지의 태도와 둘의 우정의 통해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4) 피터 시스(Peter Sis)의 <마들렌카의 개>

체코 출신인 피터 시스는 유명한 작가인 동시에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고, 영화 제작자이다. 그는 세밀한 묘사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로 칼데콧 상을 수상했으며 볼로냐 라가치 상을 비롯해 칼데콧 아너 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며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로 자리 잡았다. 2012년에는 그동안의 아동문학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아동 도서협의회(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IBBY)’가 주관하는 안테르센 상을 수상하였다.<sup>3)</sup> 피터시스의 <마들렌카의 개>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소녀의 이야기다. 마들렌카는 부모님이 개를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상상의 개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자신의 개를 동네 어른들에게 소개시킨다. 가는 펜과 수채물감을 섞어 그린 그림은 피터 시스 특유의 빈틈없이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잘 어울린다. 이 그림책에서 주목하여 볼 점은 마들렌카에 대한 동네 어른들의 시선과 반응이다. 마들렌카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네 어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어린이의 존재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3) 안테르센 상은 세계의 아동문학상 중에서도 상당히 받기 어려운 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단 스무 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수상하였고 중복해서 수상한 작가가 없다. 이 상은 단순히 한 작품으로만 수상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평생 동안 작업한 모든 작품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책 부문에 평생을 지속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안테르센 상은 작은 노벨상(Little Nobel Prize)이라고 까지 불린다.

<표 1> 최종 분석 대상 그림책

제목 <알도>	글·그림/ 출판사	작가 수상 경력	펼침 면 수
 <시간상자>	존 버닝햄/시공주니어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15 면
 <장수탕 선녀님>	데이비드 위즈너/베들북	칼데콧 상 칼데콧 아너 상	18 면
 <마들렌카의 개>	백희나/책읽는곰	블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상	18면
	피터 시스/베들북	칼데콧 아너 상 블로냐 국제 아동도서 라가치 상 안데르센 상	16면

### 3. 그림책 분석과 해석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분석 대상 자료 즉 그림책 장면과 이야기들을 극화코딩(dramaturgical coding)하였다. 극화코딩은 Saldana(2009)가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사건이나 활동을 연극적인 과정에 비하여 분석하는 코딩기법이다. 이것은 Saldana(2005, 2009)외에도 Berg(2001)의 코딩방식에서 그 소스를 찾을 수 있다. 연극의 극본에는 배경과 상황, 등장인물과 그들의 역할, 사건의 전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극화코딩에서는 해당 자료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코딩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참여자의 주체적 해석을



찾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조용환, 2011). Saldana(2009)에 의하면, 극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극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체험이 과정이 반복된다. ‘배우(참여자)들의 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갈등’,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 ‘갈등이나 그 밖의 것에 대한 주체들의 태도’, ‘배우(참여자)가 겪는 감정’, ‘말해지지 않은 하위 텍스트들’ 이다. 극화코딩에서는 질적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러한 극의 진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요소에 따라 분류해 봄으로써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단위들을 정렬하고 주제어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작가들의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그림책의 텍스트를 질적연구에서의 수집 자료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극화코딩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딩의 요소에 따라 장면과 이야기를 코딩하였다. 이를 통해 각 그림책에서 또한 그림책들 간에 반복되는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구조화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 그림책 속에 나타난 어린이 존재론에 대한 주제어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코딩을 통해 발견한 어린이의 존재 특징에 대한 해석은 현존재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존재론적 현상학자로 불리는 Heidegger(1998), 타자의 윤리학에 대해 이야기 한 Levinas(1996), 그리고 현상학적 탐구를 ‘존재와 존재변화의 과정’ 으로 이야기 한 van Manen(1994)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표 2> 극화코딩(dramaturgical coding) 결과 요약

그림책	코딩 요소	사례	존재 특징 주제어
<알도>	목적	관계의 소외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원함	피투이며 기투하는 중층적 존재
	갈등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함/ 부모님의 불화	
	전략	자신만의 상상 친구 알도를 만들어 냄	
	태도	알도는 힘들 때면 자신을 지켜주는 친구라 믿음	
	감정	알도에게 위로를 받고, 앞으로의 친구관계에 대해 희망도 갖게 됨	
<시간상자>	목적	바닷가에서 재밌는 놀거리를 찾음	욕심을 버리고 책임지는 존재
	갈등	바다 속 비밀을 간직한 카메라를 발견하게 됨	
	전략	없음	
	태도	욕심과 고민을 버리고 카메라를 바다에 던짐	
	감정	카메라로 인한 또 다른 친구들과의 연대를 기대함	
<장수탕 선녀님>	목적	오래된 장수탕에서 즐길 거리를 찾음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존재
	갈등	친구가 된 선녀할머니가 요구르트를 원함	
	전략	요구르트를 위해 뜨거운 탕을 참고 때를 밟	
	태도	선녀할머니를 위해 하나뿐인 요구르트를 양보함	
	감정	요구르트를 마시는 할머니를 보며 함께 좋아함	
<마들렌카의 개>	목적	강아지를 키우고 싶음	성인의 교육적 반응을 촉구하는 존재
	갈등	부모님이 강아지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전략	상상의 강아지를 만들어 데리고 나감	
	태도	마을 어른들에게 자신의 강아지를 소개함	
	감정	마을의 모든 강아지를 얻은 것 같이 즐거워 함	

### Ⅲ. 연구결과

#### 1. <알도>의 어린이 : 피투(被投)이며 기투(企投)하는 중층적 존재

<알도>는 주인공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시작된다. “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라는 대사와 함께 시작되는 첫 그림에서 버닝햄이 묘사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그의 다른 수많은 그림책 속의 주인공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는다. 가느다란 팔과 다리, 움츠러든 목과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떨리는 선<sup>4)</sup>은 아이의 움츠러든 존재성을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앙다문 입술과 애매한 표정에선 모종의 강인함이 전해지기도 한다. 주어진 상처로 움츠러들었지만 동시에 강인함을 가진 이러한 존재의 중층적인 이미지는 그림책 <알도> 전반에 걸쳐 표현되고 있다.

<알도>에 나타난 아이의 움츠러든 존재성의 첫 사례는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가지만 함께 놀지는 않는,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지만 즐기지는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이다. 그림에서 주인공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놀이터를 지나간다. 아이는 신나게 그네를 타고 있는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이 오로지 앞만 보며 가고 있다. 외식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인공은 식당에서 즐겁게 어울리며 식사를 하는 다른 사람들을 목을 빼고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은 식구들과 즐겁게 어울려 먹지 못한다. 아이는 같이 있긴 하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는 식구들과 앉아 식당 저편에서 서로서로 즐겁게 어울리며 먹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세계와 아이가 원하는 세계는 사뭇 다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세계 속에 외롭게 앉아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세계 속에 철저히 내 던져진 어린이의 존재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그럴 때에는 정말 신이 나지”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닝햄 특유의 뒤틀기로서 오히려 아이의 외로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주인공 아이가 화장실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다. 버닝햄의 대부분의 전개 방식이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세한 맥락은 묘사되어 있지 않으나 이 한 장면으로도 아이의 괴로움과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진다. 주인공 아이의 노트와 학용품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아이는 친구들에게 머리를 잡힌 채 겁에 질린 표정이다. 특히나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친구들과 즐겁게 그네를 타고 어울리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아이의 외로움이 더욱 증폭된다. 아이는 어찌할 수 없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세계-내 존재이다.

세번째 사례는 주인공 아이가 부모님의 불화를 견디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별다른 자세한 설명 없이 “알도가 날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라고 묘사하며 몹시 움츠러든 아이 뒤로 서로 샷대질을 하며 싸우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버닝햄 특유의 압축적인 묘사로 별다른 설명 없이도 아이의 불안과 슬픔이 장면 전체에서 강렬하게 전해져 온다. 부모님의 불화는 아이가 도무지 어찌지 못하는 일이다. 아이는 그저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존재다.

4)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은 연필 스케치를 하는 것과 같은 마감처리로 유명하다. 그의 그림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가느다랗게 떨리며 마치 어린이가 그린 것과 같은 미완성의 느낌을 준다.

이럴 때 아이는 그 자신이 도무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세계 속에 그야말로 ‘내 던져져’ 있다. 이때 아이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다. 이러한 인간 존재적 특징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세계-내 존재”라고 표현했다. 인간 모두는 자신이 선택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피투(彼投)된 존재라는 것이다(Heidegger, 1998). 이러한 피투성은 인간 모두의 공통된 존재적 특성이지만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겐 더욱 주요한 특성이 된다. 여기서 버닝햄은 어린이도 세계의 일부이며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존재의 피투성과 동시에 인간이 죽음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기투(企投)하는 존재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투성이 <알도>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주인공의 영원한 친구 <알도>다. 주인공은 세계에 내 던져져 있는 자신의 외로운 상황 끝에 “그래도 난 행복해. 정말정말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친구 <알도>가 있기 때문이다. 명시되어 묘사되지 않았지만 <알도>는 주인공의 상상 친구다. 알도는 주인공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찾아오는 나만의 친구, 나만의 비밀”인 친구다. 화장실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달아난 것도 알도 때문이고, 한 밤중에 무서운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자신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알도 덕분에 마음을 쓸어내린다. 아이는 알도와 함께 뱃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탄다. 물론 부모님의 불화처럼 알도가 도와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상황도 있지만, 언젠가 자신의 삶이 바라는 것처럼 즐거워지면 알도를 잊고 지내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도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주인공에게 알도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내편이다.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 속에 내던져진 채 살아가는 아이가 자신의 존재적 불안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절대적 친구다. 주인공은 알도라는 상상의 친구를 통해 이러한 절대적 내편을 만듦으로서 세계 속에 내 던져진 자신의 피투성을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외로움 속에서도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세계 속에 자신을 던지는 기투이다.

위와 같이 버닝햄의 <알도> 속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이 피투되어 있는 세계-내 존재로서의 어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기투하는 세계-에로의 존재로서의 어린이가 그려져 있다. <알도>의 어린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현존재로서 세계 속에 피투되었지만 동시에 기투하는 중층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2. <시간상자>의 어린이: 욕심을 버리고 책임지는 존재

<시간상자>는 “엷혀있음”에 관한 이야기다. 데이비드 위즈너의 다른 그림책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시간상자> 또한 글 없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한 남자 아이가 여름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파도에 밀려 온 오래되고 낡은 카메라 하나를 건져 올린다. 카메라 속에는 필름이 있고 아이는 필름을 인화해서 사진을 확인한다. 사진 속에는 바다 속을 때를 지어 다니는 신기한 생물들, 외계인들, 아름다운 인어들과 같은 바다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사진을 보는 아이의 눈이 빛난다. 주인공은 드디어 마지막 사진을 발견한다. 한 아이가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웃으며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던 주인공의 눈이 흔들리다가 크게 놀란다. 현상한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가 들고 있는 사진 속에는 사진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고,

그 사진 속에는 또 다른 아이가 사진을 들고 활짝 웃고 있고....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다. 아이는 돋보기로 그 사진 속의 사진 속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한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백인, 흑인, 아시아 아이도 있다. 사진 속에는 저마다의 시대적 배경이 달리 보일 만큼 긴 시간의 흐름이 들어 있다. 아이가 현미경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진은 100년 전은 되었을 법한 배경 속의 아이이다. 카메라를 발견한 아이마다 그 전 발견자가 사진을 들고 찍은 사진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그 한 장의 사진 속에는 그 카메라를 발견한 모든 아이들의 모습이 전부 다 들어 있는 셈이다(전가일, 2014).

이 장면은 독자들에게 다의적 해석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장아빔(Mise-en-Abyme)의 효과가 극대화 된 부분이다. 이 미장아빔은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전 세계의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 공간의 중첩과 과거의 아이들을 현재로 연결해 주는 시간의 중첩을 가능케 한다(김영욱, 2012). 주인공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카메라 속 사진을 통해 멀리 있는 아이들, 오랜 시간 전의 아이들과 조우한다. 아이는 사진 속의 아이들과 공간과 시간을 넘어 선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과 시간, 관계가 끈끈하게 얽혀진다. 깊은 바다를 촬영하며 바다 속의 비밀을 안은 채 오랫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 카메라는 사진 속에 켜켜이 얽혀있는 공간과 시간, 관계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조우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얽힘 속에서 카메라를 대하는 아이의 선택과 반응은 어린이의 존재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준다. 아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인공은 바닷가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그러더니 그 얽혀있음의 사진을 들고는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는 바다를 향해 카메라를 힘차게 던진다. 주인공이 카메라를 바다에 던지는 이 장면은 성인 독자에게 일종의 경외심을 일으킨다. 아이는 다른 계산 없이 진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귀한 카메라를 바다에 던졌다. 아마도 그 카메라를 발견한 것이 어른이었다면 판단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어른이라면 그 비밀의 카메라는 매우 귀한 자료이므로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명성을 가지려고 했거나 최소한 그에 대해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를 세상에 공개하고 명성을 취하게 되면 그 카메라의 비밀스런 여행은 끝이 나고 카메라를 발견한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공간과 시간, 인종을 초월해 지켜오던 얽힘의 여행도 끝이 난다. 그래서 <시간상자> 속의 아이들은 욕심을 버리고 그 관계의 얽힘을 지켰다. 바로 그것이 사진 속에 들어 있는 공간도 시간도 인종도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요청하고 있는 바임을 아이들은 알았다. 그림책 속의 아이들은 그토록 진귀하고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카메라를 다시 바다 속에 던짐으로써 자신을 향한 요청에 반응한 것이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도, 고려할 것도 너무 많은 어른들처럼 복잡한 계산을 하는 대신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카메라를 다시 바다로 던졌다. 아이들은 카메라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가질 수 있는 명예의 욕심을 버리고 한 번도 직접 마주하지 못한, 하지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종을 넘어 바다 속 비밀로 맺은 소중한 연대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에 책임을 지는 길을 택한 것이다(전가일, 2014).

### 3. <장수탕 선녀님>의 어린이: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존재

<장수탕 선녀님>은 유토지의 인형 사진을 통한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인공 아이와 선녀할머니의 표정이 극적이면서도 섬세한 선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장수탕 선녀님>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얼굴에 대한 섬세한 표현은 이 이야기를 ‘얼굴 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극히 개별적이고 환원할 수 없는 주체로서의 고유한 한 인간의 이야기로 만든다(강영안, 2005). 이야기는 어슴푸레한 아침녘에 주인공 여자아이 덕지가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네에 있는 매우 오래된 목욕탕인 ‘장수탕’이다. 덕지의 표현을 빌면 “큰 길에 새로 생긴 스파랜드에는 불가마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얼음방도 있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덕지 뒤로 음료수와 요구르트 병이 있는 냉장고의 모습이 어릿어릿하게 보인다. 장수탕은 비록 오래된 목욕탕이지만 덕지가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요구르트를 사준다는 것과 여러 가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냉탕이다.

그날도 덕지는 여느 날처럼 냉탕에서 물장구를 친다. 그러다가 냉탕에서 이상한 선녀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커다란 귀걸이에 선녀의 상징인 올림머리를 한 할머니는 덕지에게 자신이 “날개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있는 선녀라고 소개한다. 그런 선녀 할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덕지. 그런데 그 선녀할머니는 냉탕에서 신나게 노는 법을 많이 알고 있었다. 둘은 냉탕에서 놀면서 친구가 되어 간다. 덕지에게 다가간 할머니 그리고 덕지가 그 할머니의 다가섬에 반응하면서 둘은 새로운 관계를 창출한다. 덕지는 할머니를 의아하게 여기며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혼자 냉탕에서 놀고 있는 자신에게 선녀임을 밝히며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할머니에게 반응한 것이다. 냉탕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선녀 할머니의 모습이 두 쪽의 화면 가득 그려진 장면은 독자를 단숨에 덕지와 선녀할머니가 창조한 판타지 세계로 끌어들인다. 냉탕에서의 놀이가 끝나갈 무렵 선녀할머니는 덕지에게 사람들이 모두 맛나게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수줍게 물었다. “요구르트요” 라고 대답하는 덕지.

대답 후 덕지의 행동은 이 그림책에서 묘사하는 어린이의 존재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덕지의 대답에 부러운 얼굴을 하는 할머니를 보며 덕지는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덕지는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그고 때를 불린 후 엄마에게 때를 밀도록 하고서는 엄마가 때를 밀어줄 때도 울지 않고 꼭 참는다.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사준 요구르트 한 병을 선녀할머니에게 내민다. 자신이 장수탕을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요구르트를 할머니에게 주저 없이 양보하는 것이다. 양보를 넘어서 오히려 친구가 된 선녀할머니의 바람과 필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 막연한 타인을 향해 가지는 일반화된 동정심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반응이다. 이 장면에서 덕지는 타인의 얼굴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반응을 함으로써 인간 간의 상호주체성을 이뤄나가는 주체가 된다.

Levinas(1979)는 인간 간의 상호성은 동등하며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적이라고 하였다. 타인은 나와 동등한 대상의 인간이 아니다. 타인은 오히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다” (Levinas, 1979: p.101). 따라서 나는 그러한 상처받기 쉽고, 약한 타인을 위한 존재이며 타인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이다. 나의 주체성은 그러한 타인을 위해 그와 같은 자리에 처

할 수 있는, “매 맞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강연안, 2005). 장수탕 선녀님의 덕지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비대칭적인 상호성, 연약한 타자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선녀 할머니는 성인이고 덕지는 어린이지만, 목욕탕에서 숨어살면서 요구르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선녀할머니는 덕지에게 있어 약하고 가난한 타인이다. 선녀할머니는 얼굴 없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필요와 아픔을 지니고 그것을 표현한 얼굴로서 지금 덕지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지는 비록 어린이지만 그러한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존재를 다하여 선녀할머니에게 요구르트를 마련해 준다. 이 반응은 덕지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놓고 스스로 수동적인 주체가 되었기에 가능하다. 레비나스가 표현한 대로 덕지는 “수동성보다 더 수동적인 주체”가 되어 타인의 필요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장수탕 선녀님>에서의 어린이는 타인의 필요를 돌봄으로써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 4. <마들렌카의 개>의 어린이: 교육적 반응을 촉구하는 존재

<시간상자>의 어린이가 욕심을 버리고 얽힌 관계에 책임을 지는 존재, <장수탕 선녀님>의 어린이는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존재였다면 <마들렌카의 개>에는 여전히 성인의 교육적 반응을 촉구하는 어린이가 묘사되고 있다. <마들렌카의 개>는 어렸을 적엔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한 바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넓은 우주 속의 한 행성, 그 행성의 한 대륙, 그 대륙의 한 나라, 그 도시의 한 동네... 한 아이가 살았어요. 그 애 이름은 마들렌카.” 라는 첫문장은 마들렌카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이이며, 마들렌카의 이야기가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들렌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마들렌카의 부모님은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거절에 대해 마들렌카는 부모님을 계속 조르거나 실망과 낙담으로 앉아 있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한다. 빨간 끈 하나를 가져와서 상상의 강아지를 만드는 것이다. 마들렌카는 상상의 개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간다.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빨간색 끈을 개 끈 삼아 강아지라며 끌고 거리로 나온 마들렌카는 동네 어른들에게 자신의 강아지를 소개한다. “좀 보세요. 내 개랑 지금 산책하고 있어요.” 라며 어른들에게 말을 거는 마들렌카. 이러한 순간, 마들렌카와 같은 아이에게 동네 어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van Manen(2012a)은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순간들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그는 우리의 일상에서 ‘잠들기 전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는 상황’, ‘실수를 저지른 아이를 마주한 교사’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 “교육적 상황”을 이야기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이에게 그 상황을 교육적 혹은 비교육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들렌카가 상상의 강아지를 끌고 나와 어른들에게 자신의 강아지를 소개하는 이 상황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한 교육적 순간에 성인들의 반응에 따라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바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피터 시스는 마들렌카의 어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교육적인 상황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강아지를 소개하는 마들렌카에게 마을의 맥그레고르 아저씨는 말한다. “짜리몽땅하구나” 그러나 옆에서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던 또 다른 마을 어른 에드아르도는 “아니예요. 크

고 북실북실한데요.” 라고 말한다. 그 뒤에 신문을 읽으며 지나가는 관광객 아저씨는 “나는 녀석의 얼룩무늬가 마음에 드는 걸” 하고 말한다. 마들렌카를 만나는 어른들은 저마다 마들렌카의 상상의 개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며 반응을 한다. 이러한 어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책은 마들렌카의 강아지 소개에 대해 반응하는 어른들 한명 한명을 플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플랩을 들추면 강아지와 관련된 마을 어른들의 옛 기억이 묘사되어 있다. 맥그레고르씨는 어릴 때 짜리몽땅한 강아지를 키웠고 에드아르도는 몸집이 크고 털이 북실북실한 개를 키웠다. <마들렌카의 개>에 등장한 마을 어른들은 상상의 강아지를 소개하는 마들렌카에게 ‘장난치지 말라’ 고 무안을 주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다. 마들렌카의 도시에 지나가는 마을 어른들은 굳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들렌카의 간절한 바람이 섞인 아이의 가상(假想)에 동참함으로써 마들렌카에게 반응하는 능력으로서의 ‘책임’ (responsibility)을 보이고 있다.<sup>5)</sup>

<마들렌카의 개>에서 동네 어른들의 반응은 마들렌카의 상상을 견고히 하는 것이므로 마들렌카로서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청이다. 마들렌카는 마을 어른들에게 상상의 강아지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상의 세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van Manen(2012b)은 ‘교육적 접촉(pedagogical contact)을 이야기한 논문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반응을 하는 성인의 일화들을 통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이 교육적 책임을 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van Manen(2012b)은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은 그때그때 마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교육적 접촉을 해 오는 촉발자들인데 이러한 접촉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반응인가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와의 따뜻한 눈 빛 교환(eye contact), 아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 아이의 좌절에 대한 공감 등을 통해 교육적 반응을 할 수 있다(van Manen, 2012b, Yin,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마들렌카의 개>에 나오는 아이는 어른들에게 이러한 반응, 즉 교육적 책임을 촉구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물론 피터 시스는 마들렌카의 놀라운 상상력을 묘사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개를 키울 수 없는)을 새로운 방식(상상의 개를 키우는)으로 타개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마들렌카의 개>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린이는 성인에게 자신에 대한 교육적인 반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그림책 속에 나타난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피투이며 동시에 기투하는’, ‘욕심을 버리고 관계의 얽힘에 책임지는’,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교육적 반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주제화 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어린이의 존재 특징은 분석대상 작가들의 또 다른 그림책에도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한 주제는 동일한 한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속에서 자주 반복하여 나타나며 다른 작가들의 작품 속에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존 버닝햄의 경우 기투와 피투의 존재적 중층성이라는 주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반복된다. 그의 대표작인 <지각대장 존>과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등은 어려운 상황 속에 내 던져진 주체와 처해진 세계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던져 그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주체들의 힘이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연구에서 발견한 좋은 그림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린이 존재

5) 책임의 영어표현은 responsibility 인데 이는 반응하다라는 response와 능력이라는 ability가 결합된 형태다. 이런 맥락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전가일, 2014b).

특징이 드러난 분석 대상 작가들의 또 다른 그림책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3> 어린이 존재 특징을 묘사한 작가들의 또 다른 그림책

그림책	존재 특징	다른 그림책
존 버닝햄 <알도>	“피투이며 동시에 기투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존 버닝햄 &lt;지각대장 존&gt;</li> <li>●존 버닝햄 &lt;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gt;</li> <li>●존 버닝햄 &lt;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gt;</li> </ul>
데이비드 위즈너 <시간상자>	“관계의 얽힘에 책임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비드 위즈너 &lt;구름 공항&gt;</li> <li>●존 버닝햄 &lt;야! 우리기차에서 내려&gt;</li> <li>●존 버닝햄 &lt;검피 아저씨의 뱃놀이&gt;</li> </ul>
백희나 <장수탕 선녀님>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희나 &lt;빼약이 엄마&gt;</li> <li>●백희나 &lt;구름빵&gt;</li> <li>●백희나 &lt;꿈에서 맛 본 뽕파리&gt;</li> </ul>
피터 시스 <마들렌카의 개>	“교육적 반응을 촉구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존 버닝햄 &lt;우리 할아버지&gt;</li> <li>●피터 시스 &lt;마들렌카&gt;</li> <li>●존 버닝햄 &lt;지각대장 존&gt;</li> <li>●존 버닝햄 &lt;에드워드&gt;</li> </ul>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인 관점에서의 어린이 존재론을 넘어서기 위해 유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좋은 유아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좋은 그림책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작가 4인의 유아 그림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어린이의 존재 특징 각각 “피투이며 동시에 기투인”, “욕심 없이 책임지는”, “타인의 얼굴에 반응하는”, “교육적 반응을 촉구하는” 존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의 결론을 기존 연구 및 유아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등과 관련하여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유아 그림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어린이는 피투적이며 동시에 피투적인 존재의 중층성을 지난다는 측면에서 성인의 존재 특징과 다르지 않다. 기존의 발달이론에서 ‘아동기’를 성인기와 구별되는 다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여긴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분석한 그림책의 어린이는 존재적 중층성을 지님으로써 성인의 존재성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전가일, 2013). 존 버닝햄의 <알도>는 어린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피투된 세계-내 존재이자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던져 그러한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기투하는 존재임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과 같은 버닝햄의 또 다른 그림책들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린이의 중층적인 존재성은 Schorsch(1996) 지적한 바와 같은 전통적이며 인습적인 어린이 담론이 어린이가 아직 성인의 인지적 신체적 성숙에 이르지 못한 발달하는 존재임에 초점을 두어 연약하며 의존적인 어린이의 존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 연구는 인습적 어린이의 존재론과는 달리 어린이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계-내 존재로서 피투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세계-외로 자신을 던져 기투하는 중층적인 존재라는 점을 일깨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반응자일 뿐 아니라 촉발자로서의 어린이의 존재 특징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전가일, 2013;



Danby, Thompson, Theobald, & Thrope, 2012; Heidegger, 1998; Leavitt, 1997)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의 존재성은 유아 교육 현장에서 성인들이 유아가 세계-어로 기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둘째, 유아 그림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어린이는 성인의 교육적 반응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존재 특징과 다른 독특함을 지닌다. <마들렌카의 개>에서 어린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상상의 강아지를 만들어 내고 이 강아지를 동네 어른들에게 소개시킴으로써 성인들(동네 어린이들)에게 교육적 반응(자신의 상상의 강아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요청하고 있다. <마들렌카의 개>에서 그려지는 어린이의 존재성은 성인에게 교육적 반응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존재 특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의 존재성이 어린이의 부족함이나 성인에 대한 의존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Smith(1983)는 어린이에 대한 보다 자연스러운 이해를 위한 <아동의 의미>라는 연구에서 어린이의 의미를 “성인을 책임의 장으로 불러내는 강력하고 끈질긴 목소리”(Smith, 1983; p.187)로 해석하고 있으며, Bollonow(1971) 또한 어린이가 성인에게 끊임 없는 인내와 신뢰를 요청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성인의 교육적 반응이나 책임 혹은 신뢰와 인내에 대한 “요청” 이야말로 오히려 아이들이 성인에게 가진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이러한 어린이의 교육적 존재성은 관련한 연구들(Danby, Ewing, & Thorpe, 2011; van Manen, 2012b; Yi, 2013)에서도 성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인에게 교육적 반응을 요청하는 존재로서의 어린이는 존 버닝햄의 또 다른 대표작 <지각대장 존>과 <에드워드>, <우리 할아버지> 등에도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어린이의 존재 특징은 유아와 관련된 교육 현장에서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운다.

셋째, 유아 그림책에서 나타난 어린이는 욕심을 버리고 관계에 책임을 지며 타인의 얼굴에 조건 없이 반응하는 존재라는 면에서 성인의 존재 특징을 초월한다. <시간상자>에서 그려진 어린이는 너무나 탐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친구들과의 연대한다. <장수탕 선녀님>의 어린이는 선녀할머니의 필요에 대해 조건 없이 반응함으로써 성인이지만 오히려 자신보다 약자인 것으로 보이는 타인을 책임진다. 그림책 속의 아이들은 자신 앞에 현현한 타인의 얼굴과 그들의 필요, 그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내어 주고 있다. 이것은 기존 연구들(백승화, 강기수, 2012; 조문현, 박현주, 2005; Cannella, 2002)에서 전통적인 어린이 이미지를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그린 것과는 달리 어린이 존재의 강인함과 너그러움, 이 타성을 보여준다. 타인의 얼굴에 반응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수동적인 존재보다 더욱 수동적이 되는 것은 타인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여는 관계맺음이다(강영안, 2005; 서덕희, 2012; Sohostack, 2008). 이렇게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관계맺음은 성인에게도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의 존재성은 오히려 성인의 그것을 넘어선다. 유아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어린이의 존재성은 유아 교육현장에서 관련 현장가들이 유아의 의존성과 자기중심적 사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인의 존재적 특성을 넘어서는 유아의 존재 특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연구는 유아 그림책 분석을 통해 어린이의 존재성을 고찰한 것으로 분석 대상 그림책 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과 함께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선별한 4권의 그림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동문학상 수상 도서 전반에 걸친 흐름을 파악하거나 그것을 기초로 하여 논의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성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추후에 아동문학상 수상 도서 전반에 걸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성에 대한 기초적인 흐름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분석 대상 그림책을 선정함에 있어 국내·외 그림책에 대한 특별한 변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회의 어린이 상은 그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존재성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그림책을 선정할 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외 도서를 구별하거나, 어린이의 존재 특징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 자체를 분석 주제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존재론적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기존의 어린이 존재론이 어린이의 발달적 특징에 초점을 두어 의존적이며 수동적이고,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의 어린이를 부각한 것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그림책 속에 나타난 어린이는 전통적인 어린이 담론과는 달리 중층적 존재이며 반응을 요청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성인과 같은 존재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시대를 반영하고 때로는 시대의 가치를 앞서 나가는 문학작품의 하나인 유아 그림책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이 연구가 어린이의 존재 특징과 어린이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련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어린이와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그림책 박물관 누리집 (2014). <http://www.picturebook-museum.com>, 출력일 2014년 8월 15일.
- 김영연, 최남정 (2009). 그림책 <지각대장 존>에 나타난 교사 이미지: 권력자. **어린이미디어연구**, 8(2), 23-41.
- 김영욱 (2012).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미장아빌: <나의 빨강책>과 <시간 상자>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91-120.
- 김정선 (2013). 그림책 언어로서의 프레임: 데이비드 위즈너의 그림책 텍스트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6(2), 61-67.
- 김현경, 현은자 (2006). 그림책에 나타난 꿈의 이미지 연구.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7(1), 1-39.
- 나선희, 현은자 (2008). 윌리엄 스타이그의 그림책에 나타난 상호텍스성 I. **유아교육연구**, 28(4), 353-377.
- 백승화, 강기수 (2012). 어린이 그림책의 교육인간학적 의의. **어린이문학과교육연구**, 13(3), 135-155.
- 비룡소 누리집 (2014). <http://bir.co.kr>, 출력일 2014년 8월 15일.
- 서덕희 (2012). 사회적 소수자 연구 윤리로서의 '초월': 국제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을 직

- 면해야 하는 한 연구자의 성찰일지. **교육인류학연구**, 15(1), 93-120.
- 서정숙, 김정화, 유은석 (2009). 메타픽션 그림책의 기법 분석과 그에 대한 유아의 이해: “그림책 속 그림책” 구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9(2), 211-237.
- 송미선, 서정숙 (2012).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그림책 관련 논문의 경향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1), 1-17.
- 신미숙 (2013). 데이비드 위즈너 그림책 읽기에 나타나 유아의 그림에 대한 반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혜령 (1997). 현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아동 이해의 문제. **아동교육**, 6(1), 96-110.
- \_\_\_\_\_ (2012). 해석학적 텍스트로서의 레지오 기록의 의미: 교육적 불안과 희망의 양면성. **유아교육연구**, 32(5), 415-433.
- \_\_\_\_\_ (2013).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 사이에서 걸맞기.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10(1), 5-31.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서울: 한길사.
- 이수경 (2013).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 나타난 판타지 공간의 의미. **동화와 번역**, 26, 223-240.
- 이유림 (2013). 무성영화 요소를 통해 데이비드 위즈너의 시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은 (2012). 한국판타지 아동문학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경 (2007). **모더니티의 지층들**. 서울: 그린비.
- 장성단, 이주리 (2013).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의 심층의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263-283.
- 전가일 (2013). 자유놀이에서 유아의 관계맺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2014). 분절사회 속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기. **교육인류학소식**, 20(2), 6-9.
- 전나리 (2007). 어린이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유형 분석 및 특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혜 (2008). 한국 아동소설에 나타난 아동상 탐색. **한국아동문학연구**, 14, 135-171.
- 조문현, 박현주 (2005). TV 광고에 나타난 어린이의 이미지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4, 21-39.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11). **본격적인 일차 코딩**. 기오재 공동학습 자료 미간행.
- \_\_\_\_\_ (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 정은주 (2010). 유아의 상상력 교육을 위한 초현실주의적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규, 정대련 (2002).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 나타난 반편견적 사고 및 교육적 의미. **아동권리연구**, 6(2), 341-364.
- 최혜림 (2012). 백희나 그림동화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피터시스 개인 누리집 (2014). <http://www.petersis.com>, 출력일 2014년 8월 15.
- Berg, B. L. (2001).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Bollnow, O. F. (1990). *Pedagogik in anthropologischer sicht*. **교육의 인간학**(오인탁, 전체영 옮김).

- 서울: 문음사(원판 1971).
- Cannella, G. S. (2002). Deconstruc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이론 해체하기: 비판적 접근**(유혜령 옮김). 서울: 창지사(원판 1995).
- Danby, S., Ewing, I., & Thorpe, K. (2011). The Novice researcher. *Interviewing Young Children. Qualitative Inquiry, 17*(1), 74-84.
- Danby, S., Thompson, C., Theobald, M., & Thrope, K. (2012). Children's strategies for making friends when starting school.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7*(2), 63-71.
- Gadamer, H. G. (2000). Wahrheit und methode. **진리와 방법I**(이길우 옮김). 서울: 문학동네(원판 1960).
- Heidegger, M. (1998).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전양범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원판 1927).
- Leavitt, R. L. (1997). *Civilizing bodies children in day care. Making a place for pleasur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39-75). CT: Yale College.
- Levinas, E. (1996). Le temps et l'autre. **시간과 타자**(강영안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원판 1979).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 Inquiry*. CA: Sage.
- Saldana, J. (2005). Theatre of the oppressed with children: A field experiment. *Youth Theatre Journal, 19*, 117-133.
- \_\_\_\_\_ (2009).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 Schorsh, A. (1996). *Images of childhood*. NY: The Main Street Press.
- Schostak, J. (2008). *Interviewing and represent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NY: Opren University Press.
- Smith, D. (1983). *The meaning of children: A hermeneutic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 Suransky, V. P. (1992). The Erosion of childhood. **아동기의 실종**(윤종화, 이재연 옮김). 서울: 교보문고.
- van Manen, M. (1994).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체험연구**(신경림 옮김). 서울: 동녘(원판 1990).
- \_\_\_\_\_ (2012a). The tone of teaching.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정관순, 김선영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1986).
- \_\_\_\_\_ (2012b). The call of pedagogy as the call of contact. *Phenomenology & Practice, 6*(2), 8-34.
- Yin, Y. (2013). Contact with my teacher's eyes. *Phenomenology & Practice, 7*(1), 69-81.

##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young children ontologically by examining features of young children in the picture books for the early childhood. For the purpose, under the consultation with a picture book specialist and three level process of selection, 4 picture books were chosen as analytic objects. The study questions is as follows. What is ontological understandings on young children throughout picture books for the early childhood? Under this purpose the books chosen were John Burningham's <Aldo>, David Wiesner's <Plotsam>, Hina Back's <Fairy of Jangsutang>, Peter Sis's <Madlenka's Dog>. The books went through dramaturgical coding and were thematised based on the theories of ontological phenomenology. Study results show that young child-being appearing in the picture-books are thematised as 'multi layered being with Ntwurf and Geworfenheit(Aldo)', 'responsible being risen above greed(Plotsam)', 'reflective being on face of others(Fairy of Jangsutang)', 'being who encourages educational response of adults.(Madlenka's Dog)' These results revealed that young child-being have features not different from (multi layered aspect of being), unique from(encouraging educational response), and beyond adult-being(responsibility and response towards others). Despite several limitations, this study helped understand the young children ontologically by revealing that they, not only as developmental beings with imperfection, dependence, and immaturity but as multi layered and requesting, responsible being, having the same features as adults and, at times, rise above adult-being.

▶ *Key Words* : *picture book, ontology of child, ontological understanding*

논문투고	2014. 10. 15.
수정원고접수	2014. 12. 01.
최종게재결정	2014. 12. 21.